

# 버스킹·음악놀이로 클래식 즐기세요

### 광주시립교향악단, 16일 'GSO 프롬스' 음악회 클래식 작곡가 가면 만들고 자신만의 악보 체험 마이클 도허티 작곡 '민주의 노래' 초연도

“버스킹, 음악놀이로 가볍게 클래식 즐겨보세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6일 오후 4~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과 잔디마당 등에서 특별음악회 'GSO 프롬스'를 연다.

'프롬스(Proms)'는 산책을 뜻하는 '프로미나드(Promenade)'와 콘서트를 합친 말로 바닥에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를 말한다. 1895년 영국 방송국 BBC가 시작한 프롬스는 클래식은 격식을 갖추고 들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향이 다양한 예술 체험과 공연을 결집한 '축제'처럼 광주시민이 클래식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문예회관 잔디마당 일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얼굴 모양의 가면과 공연을 결집한 '축제'처럼 광주시향이 클래식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문예회관 잔디마당 일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얼굴 모양의 가면과 공연을 결집한 '축제'처럼 광주시향이 클래식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런 공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며 마이클 도허티가 작곡한 '민주의 노래'

에 '클래식 버스킹'이 열린다.

오후 4시 30분~5시 20분에는 바이올린 오인표, 임리경, 비올라 정호균, 첼로 정아름이 현악 4중주를 선보인다. 이후 신이은, 황지인씨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가을밤의 정취를 돈다. 돛자리나 간이 의자를 가져와 잔디밭에서 즐기면 좋을 듯하다.

오후 7시에는 대극장에서 특별음악회가 열린다. 체코 야냐체 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인 하이코 마티아스 웨스터의 지휘로 광주시향이 클래식 명곡을 무대에 올린다. 헨치와 경쾌한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 46-1번'으로 문을 열고 베토벤 서곡 '에그몬트 작품 84'가 이어진다.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작곡된 스페인 로드리고의 '아랑훼스 협주곡 2악장', 체코 슬로바키아 스메타나의 대표작 '나의 조국 불타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등은 소프라노 홍주영과 하피스트 박라나와의 협연으로 만난다. 소프라노 홍주영은 베르디 국제 콩쿠르 3위를 차지한 뒤 국내외에서 활발히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하피스트 박라나는 서울시향에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며 마이클 도허티가 작곡한 '민주의 노래'



광주시향은 쉽고 친숙한 클래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오는 16일 'GSO 프롬스'를 준비했다. 클래식 버스킹과 각종 체험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소프라노 홍주영



지휘 하이코 마티아스 웨스터



하프 박라나

를 초연한다. '민주의 노래'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향이 도허티에게 작곡을 맡긴 곡이다. 지난해까지 그래미 상을 3회 수상한 세계적 작곡가 도허티는 지난 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축

제에서 '아메리칸 고딕'을 광주시향과 초연한 인연이 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애잔하고 아름다운 남도의 서정 詩로 노래

###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 신작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 펴내

“말이 지닌 본디의 것을 살리는 데 애를 썼다. 조금 더 나에게 가까워졌다. 너에게 밀착되었다.”

질박한 전라도 사투리와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남도 서정을 표현해온 이대흠 시인이 새 시집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 (장비)을 펴냈다.

지난 2010년 '귀가 서럽다' 이후 8년 만에 펴낸 시집에서 시인은 애잔하고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펼쳐낸다. 삶의 비와 본질에 가 닿는 사유와 깊은 시선은 잔잔한 공감과 여운을 준다.

“강으로 간 새들이/ 강을 물고 돌아오는 저물녘에 차를 마신다// 막 돌아간 개밥바라기를 보며/ 별의 뒤편 그늘을 생각하는 동안// 노을은 바위에 들고/ 바위는 노을

을 새긴다// 오랜만에 바위와/ 놀랐처럼 마주 앉은 그대와 나는 말이 없고// 먼 데 갔다 온 새들이/ 어둠에 덧칠된다”

“천관(天冠)”이라는 시는 시인의 고향을 소재로 존재론적 기원을 노래한다. 장흥에서 태어나 서울, 광주, 제주도 등지로 떠돌다 고향에 뿌리를 내린 것은 결국 원형적 공간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에 따른다.

함복 시인은 “뿌리가 살아 있는 시를 쓰기 위해 치열했음을 시인의 모습이 몽글겹겹이 보인다”고 평한다. 그의 작품집에는 남도로 대변되는 서정의 시편들로 가득하다.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삶의 궁극적 원형,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대한 근



원적 구심력, 사라져간 시간에 대한 애착과 긍정, 누군가를 향한 은은하고도 가파른 사랑 같은 것들이 선연하게 놓출다”고 평한다.

한편 이대흠 시인은 서라벌예술

대학을 졸업했으며 목포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창작과비평'에 '제산을 본다' 외 6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귀가 서럽다' 등을 펴냈으며 애지문학상, 육사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주도 청년문화 일자리지원 광주문화재단, 참여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사업은 9월 지역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배치 단체를 모집하고, 10월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인력을 채용해 실무에 배치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 소재 지역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으로 총 10곳을 모집한다. 참여단체에는 6개월 간(최장 2년 예정) 청년인력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또는 광주시청(www.gwangju.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3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광주문화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정책연구교류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문화읽기

### 광주의 예술 미술의 시작점과 메카는 어디일까?

누구도 '광주 예술의 거리'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다. 필자가 대학 1학년인 1987년 150m를 시작으로, 이후 150m가 길어져 현재 300m에 이르는 부끄럽고 초라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향 광주에서 명실상부한 특화거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시설물 정비나, 도로정비, 각종프로그램과 일회성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여기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거대하고 웅장한 하드웨어가 갖추어졌음에도 광주 예술의 거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지역한계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외적인 혁신과 변화



신수정 서양화가

시행착오를 걸쳐 20여년이 지나 자존심이 생긴 것이다. 오로지 예술의거리로 젊은 작가들이 모여들게 하자는 사명감으로 그렇게 버텼다.

광주 미술은 허리가 약하다. 어쩌면 허리를 못쓰는 시스템인지도 모른다. 지금 예술의 거리는 일회성 공연이나, 퍼포먼스형 전시가 아닌 정주 공간 구축이 한참 진행중이다. 마침 예술의 거리에 광주 미술협회는 거대한 큰집

### 광주 문화예술 변화가 필요하다

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누구나 강조되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언제까지 발돋움만 할 것인가?

대학을 졸업 후 광주를 떠나 직장 생활을 했다. 그리고 10여년 전 예술의 거리에 있는 동구정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관인 무등 갤러리에서 7년 정도

관장을 했다. 당시 참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술의 거리에서 작가나 예술가들의 자취를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젊음이 없었다. 동아리 수준의 그룹전과 사사로 배워 화가로 입문하는 개인전을 하는 시시한 동네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느낀 후 두근두근 나뉘어있던 작은 전시장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로비를 만들어 바로 전시장에 들어오는 낮선음을 줄였고, 조명을 현대적으로 강화해 작품이 더 잘보이게 했다. 또한 대관료만 내면 전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작가전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 광주 청년 작가들은 유독 다양한 전시 창구와 레지던스, 포토폴리오라는 미디어에 잘 포장돼 오히려 더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40대 후반의 열악한 작업실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며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위해 무료대관과 함께 큐레이팅을 했다. 대학을 졸업 후 수많은

이 있다. 500여명에서 1000여명에서 이르는 이들의 선택을 통해 대표가 된 예술계, 미술계 수장들이 '춷발'처럼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다. 필자는 그들이 예술계 특히 미술계 살림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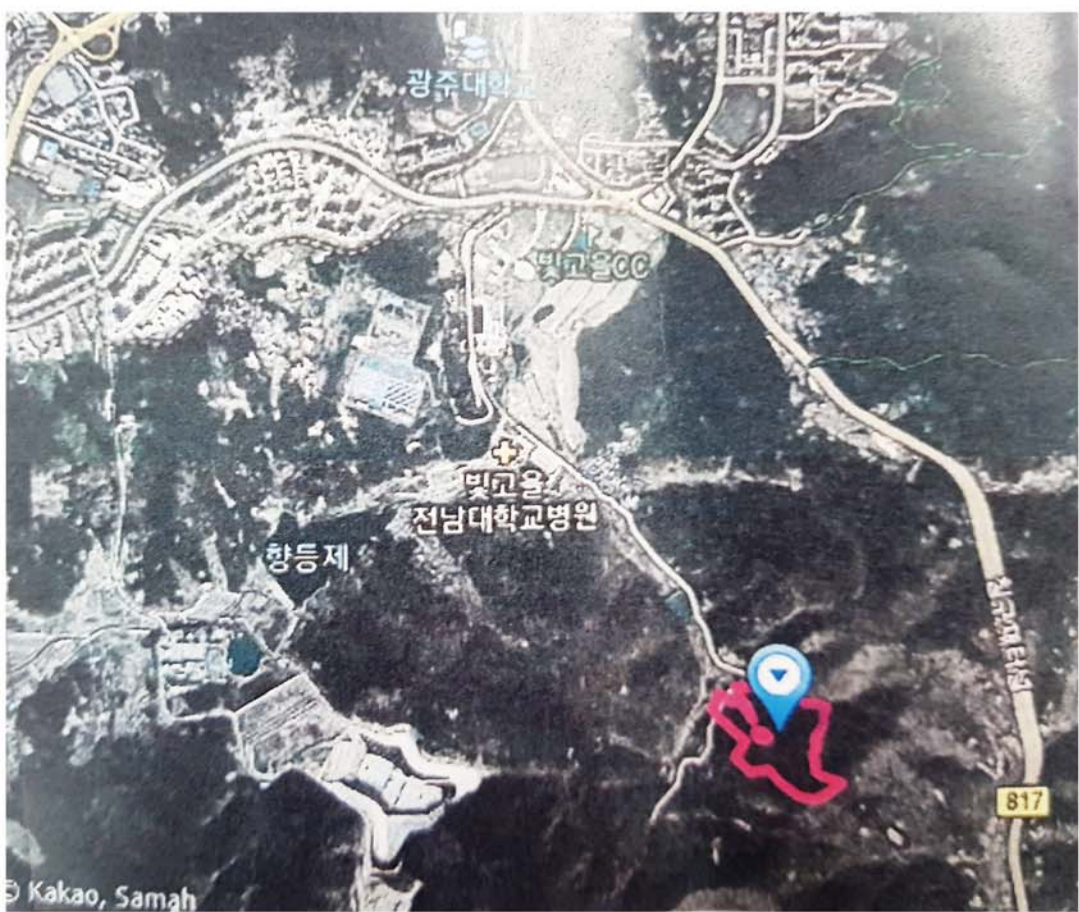
이 가을 광주 미술계가 뜨겁다. 무엇보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위치 선정을 두고 너무 여론이 난무한다. 동명동이면 어떻고 양림동이면 어떤가? 컬렉션의 규모와 운영해야 할 미술관의 정체성이 핵심요건이다. 어느 때처럼 밀실행정과 탁상공론, '그들만의 리그'에서 내자리 하나 챙기고 훌쩍 떠나가는 그런 자리싸움은 없기를 바란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선왕이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한 것을 두고, 맹자는 세속적인 음악이라도 괜찮다며 다만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한다고 충언했다. 더불어 즐길 수 있다면 옛 음악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

지금 광주는 문화예술의 변화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술은 결국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변화를 수용해 예술이 제공하는 믿음과 감동에 보조를 맞추기를 바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